

東武의 『大學』 八條目에 대한 견해 考察

이준희 · 이의주 · 송일병 · 고병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Dongmu's Thoughts about the Eight Items of 『The Great Learning(Ta hsueh)』

Lee Jun-Hee, Lee Eui-Ju, Song Il-Byung, Koh Byung-H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was purposed to find Dong's thoughts about the eight items of the 『The Great Learning(Ta hsueh)』

2. Methods

It was researched through comparative and overall study on the Dong-mu's thoughts in 『Gyukchigo(格致藁)』

3. Results

- (1) Dongmu reinterpreted the eight items of the 『The Great Learning(Ta hsueh)』 as the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from the ontologic assumption of Affairs · Mind · Body · Objects as the principle of existence and correlation, summarized into four categories, and classified into the individual and subjective affairs, and the universal and objective affairs. The four categories of the eight items of the 『The Great Learning(Ta hsueh)』 are correlated with the individual and the universal ethics of behavior, and connected with the element for overcoming the individual inclination of mind and wickedness..
- (2) After the individual and subjective human was established, the eight items of the 『The Great Learning(Ta hsueh)』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and coupled up with each two items('Being sincere in their thoughts' with 'Extending to the utmost their knowledge', 'Rectifying their hearts' with 'Investigating things', 'Cultivating their persons' with 'Illustrating illustrious virtue throughout the kingdom', 'Regulating their families' with 'Ordering their own states'). Being based on this, 'Being sincere in their thoughts', 'Rectifying their hearts', 'Cultivating their persons' and 'Regulating their families' were understood as four individual and subjective human-basic-essential activity. Especially, mind, heart, body and family(power) were regarded as the four basic element in human existence and activity, and in correlation with universe and society, set up as the subjective element in Dongmu's epistemology, theory of nature and emotion, theory of morality and theory of moral cultivation.

Key Words : The Great Learning(大學, Ta hsueh), Paljomok(the eight items of 'The Great Learning), Dongmu, Gyukchigo(格致藁)

I. 緒 論

『格致藁』는 東武公의 나이 44세(1880년 庚辰)부터 57세(1893년 癸巳)까지 10여년에 걸쳐서 「反誠箴」, 「獨行篇」, 「儒略」의 순서로 저술된 그의力作이다. 東武는 『格致藁』를 통해 儒學에서 추구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창적 방법과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四象醫學의 原理論을 형성하는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²⁾. 이을호는 東武의 학문 방법론에 대해 평가하기를 기존 유학에 대한 訓詁의 방법도, 宋儒들과 같은 窮理의 방법도 아닌 四象說의 방법론이라는 제3의 방법론을 취하고 있으며, 그의 논설은 기존 儒學 經典의 자료들을 四象의 학문방법론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하였다³⁾.

東武는 그만의 事心身物的 本體論을 바탕으로 기존 유학의 제 개념들을 四象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그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格致藁·反誠箴』에서는 八卦의 卦象을 임의로 假借하여 ‘乾箴’ ‘兌箴’ ‘離箴’... 등으로 나누어 각 箴마다 주제를 달리하여 서술하였는데, 乾兌箴에서는 ‘中庸之道’를 중심으로, 坤艮箴에서는 ‘大學之德’을 중심으로, 離震箴에서는 ‘整齊知行之術’을 중심으로, 坎巽箴에서는 ‘平均財祿之權’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논지를 四象類型的 方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⁴⁾.

2)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역음. 四象醫學. 2판. 집문당, 서울, 2004:46.

3) 이을호. 東武四象說의 經學的 基調. 한국학보 1977; 6:134-135.

4) 송일병외, 사상의학 문헌집-부제: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2권. 3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서울, 2006.

9-34 乾坤離坎箴之情僞 我必行欺詐於人之機勢也 存心之戒也 艮兌震巽箴之情僞 人必行欺詐於我之機勢也 守身之戒也

9-35 一身立誠於昊天之下 而中庸之道 行於昊天之下 乾兌部位 所以形於上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 而大學之德 行於大地之上 坤艮部位 所以形於下也 整齊知行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震部位 所以形於左也 平均財祿之權 其理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他 坎巽部位 所以形於右也 (조문번호는 『格致藁』 원문에는 없으나 『사상의학 문헌집-부제: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제3판 제2권』의 조문번호를 따랐음)

또한 『格致藁·反誠箴·序』에서는 “乾兌箴 尊道中庸 坤艮箴 欽德大學”이라 하고, 『格致藁·反誠箴·巽箴』에서는 “一身立誠於昊天之下 而中庸之道 行於昊天之下 乾兌部位 所以形於上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 而大學之德 行於大地之上 坤艮部位 所以形於下”이라 하여 『中庸』과 『大學』이 東武 本體觀의 큰 축임을 밝히고 있다.

東武가 『中庸』과 『大學』을 재해석하여 四象論 이론 전개에 근거를 삼는데 있어, 여러 곳에서 그만의 독창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大學』의 八條目을 재해석하여 그의 事心身物的 本體觀의 이론적 도구로 삼는데 있어 독창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에 논자는 東武의 『大學』에 대한 견해, 특히 ‘八條目’에 대한 견해의 독창성을 고찰하여 그의 四象論 전개에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己物論의 立場에서의 ‘大學’ ‘八條目’ 요약

(1) 朱子の 八條目에 대한 견해

朱子는 格物과 致知를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와 더불어 『大學』의 八條目으로 보아, 이 여덟 조목이 明明德부터 新民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先後, 本末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이해하였다. 權近의 「大學圖」는 八條目 중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을 明明德 아래에 두고 그 중 格物과 致知는 知에 해당되고, 誠意, 正心, 修身은 行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新民아래에는 齊家, 治國, 平天下를 두고 推行이라고 요약하였다. 八條目은 전체가 工夫에 해당되며 格物에서 平天下에 이르는 과정은 工夫의 과정이고, 그 工夫의 功效는 物格, 知至, 意誠, 心正, 身修, 家齊, 國治, 天下平 등으로 열거되며 物格에서 天下平에 이르는 과정은 功效의 과정이라고 하였다⁵⁾.

5) 한국사상연구회. 圖說로 보는 한국유학. 예문서원, 서

Table 1. 東武의 己物論의 本體觀

	事	心	身	物
一	決	覺	行	止
	誠	慧	能	勤
萬	散	聚	群	居
	智	禮	義	仁
	大	小	近	遠
	治平	格致	誠正	修齊
	貌言視聽	辨思問學	屈放收伸	志瞻慮意
	一			
	萬			

(2) 東武의 己物論의 本體觀

東武가 제시하는 『格致藁』의 己物論의 本體觀의 기본적 구조는 「儒略·事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설명하는 네 가지 요소로 事·心·身·物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주체적 요소는 心身이고, 그 주체적 인간은 객체적 요소⁶⁾인 事와 物로 구성된 세상을 인식하고 주도하는 실존적 존재가 된다. 이는 東武 己物論의 사고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에 대한 행동 형태 및 기본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東武 四元構造的 本體論의 근간이 된다. 즉 각각의 행동 형태로 ‘決·覺·行·止’와 ‘散·取·群·居’를 제시하며, 그 기본 윤리로 ‘誠·慧·能·勤’와 ‘智·禮·義·仁’을 설정하였다.

둘째, 事·心·身·物간의 상호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① ‘物은 身에 깃들고, 身은 心에 깃들며, 心은 事に 깃든다’⁷⁾고 하여 物·身·心·事의 순서로 포함관계를 형성하는 층차적인 구조가 있고, ② ‘一’이라는 개별적·주체적인 개념과 ‘萬’이라는 보편적·객체적인 개념으로 이원화하여 설정하고 있는 구조가 있다. 여기서 ‘一’과 ‘萬’의 관계는 ‘我’

와 ‘非我’, ‘己’와 ‘物’, ‘個別’와 ‘普遍’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별과 보편의 구도 속에는 다시 두 가지 차원의 설명이 있다.

우선 ②-④ 事·心·身·物 전체를 ‘一’일 때와 ‘萬’일 때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다. ‘一’이라는 개별적·주체적 차원에서의 事·心·身·物의 기본적인 행동 형태가 ‘決·覺·行·止’가 되고, 그 행동의 기본 윤리로 ‘誠·慧·能·勤’이 설정되었다⁸⁾. ‘萬’이라는 보편적·객체적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행동 형태가 ‘散·取·群·居’가 되고, 그 행동의 기본 윤리로 ‘智·禮·義·仁’가 설정되었다⁹⁾.

다음으로 ②-⑥ 事心身物을 事物과 心身으로 나누어 각각 ‘萬’과 ‘一’로 설명하는 것이 있다. 즉, 事心身物 중에서 心身을 ‘一’이라는 개별적·주체적 개념으로, ‘事物’을 ‘萬’이라는 보편적·객체적 개념으로 설정하였고, 事心을 大小로, 身物을 近遠으로 표현하며¹⁰⁾ 개별적·주체적 개념과 보편적·객체적 개념의 상관관계 및 事와 心, 身과 物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였다¹¹⁾¹²⁾.

을, 2000:43.

6) ‘객체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으나, 인간의 외적인 요소로 인간과 따로 떨어진 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事心身物 전체가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된다.
7) 『格致藁·儒略 事物』 1-1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

8) 『格致藁·儒略 事物』 1-2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
『格致藁·儒略 事物』 1-3 勤以止也 能以行也 慧以覺也 誠以決也
9) 『格致藁·儒略 事物』 1-4 萬物居也 萬身群也 萬心聚也 萬事散也
『格致藁·儒略 事物』 1-5 仁以居也 義以群也 禮以聚也 智以散也
10) 『格致藁·儒略 事物』 1-6 物萬也 身一也 心一也 事萬也
『格致藁·儒略 事物』 1-7 萬事大也 一心小也 一身近也 萬物遠也
11) 『格致藁·儒略 觀仁』 2-3 外兮萬物 苟一物之不辨 竝一身之不寧 苟一事之不達 竝一心之不安
12) 『格致藁·儒略 事物』 1-10 心應事也 博而周也 事

이상을 요약하면 인간의 주체적 요소인 心身과 객체적 요소인 事物 개념 속에는 각각 ‘一’의 개별적·주체적 차원과 ‘萬’의 보편적·객체적 차원의 二元的 구조가 있다. 또한 事·心·身·物 각각에는 하위 개념의 四四端이 설정된다¹³⁾. 이상은 東武의 己物論의 本體觀의 기본 구조를 이룬다.¹⁴⁾<표 1>

(3) 東武의 『大學』 八條目에 대한 己物論의 요약

東武는 『大學』의 八條目を 心身차원의 ‘格致誠正’과 事物차원의 ‘治平修齊’로 요약하였다. 즉 大한 萬事に 治平治國 平天下을, 小한 一心에 格致(格物 致知)를, 近한 一身에 誠正(誠意 正心)을, 遠한 萬物에 修齊(修身 齊家)를 각각 배속하고 있다¹⁵⁾.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을 개별적, 주체적 차원의 것으로, ‘治國, 平天下, 修身, 齊家’를 보편적, 객체적 차원의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며, 『大學』의 八條目を 그의 事心身物的 本體觀 속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事心身物的 本體觀속에서 誠·慧·能·勤이라는 개별적 행위윤리와 智·禮·義·仁의 보편적 행위윤리와도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됨을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개별적·주체적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私·放·逸·慾의 心慾과 嗇·侈·懶·詐의 邪心과의 관계

東武는 事心身物的 本體論을 바탕으로 한 八條目の 구분 속에서 인간의 心慾 및 邪心과의 상관관계 하에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요소(誠慧能勤, 學問思辨) 등과 연결시키고 있다.

溱心也 察而恭也 身行物也 立而敬也 物隨身也 載而效也

- 13) 『格致藁·儒略 事物』 1-9 貌言視聽 事四端也 辨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膽慮意 物四端也
- 14) 이준희외. 格致藁 儒略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2):pp.1-14.
- 15) 『格致藁·儒略 事物』 1-8 治平大也 格致小也 誠正近也 修齊遠也

東武는 私·放·逸·慾이라 하여 인간의 心慾¹⁶⁾을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私·放·逸·慾의 心慾으로 부터 嗇·侈·懶·詐¹⁷⁾의 사특한 마음이 생기게 되며, 이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의 행동 양태인 決·覺·行·止를 偏·過·不及·倚하게 한다고 하였다.¹⁸⁾ 이에 대한 극복방법인 행동윤리로 개별적 차원에서는 誠·慧·能·勤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決·覺·行·止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조건이자 實踐의 當爲라고도 할 수 있겠다. 東武는 嗇·侈·懶·詐를 ‘不善’으로, 誠·慧·能·勤을 ‘善’으로

16) 私心으로 어두워 알지 못하고,放心으로 窒碍하여 통하지 못하며,逸心으로 罔失하여 생각하는 바가 없고,慾心으로 어두워 보아도 가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私心으로 인해 천하의 일을 보면 소홀히 하면서 자기의 일을 보면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모든 것을 자기의 사사로운 것으로 얻어 가지려 한다고 하였다.放心으로 인해서는 一身을 생각함에 열려함이 없이 멋대로 행동하면서 마음만을 쾌족히 하니, 마음대로 放縱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였다.逸心으로 인해서는 一心을 생각하되 하는 일 없이 스스로 포기하면서 몸만을 편안하게 하여,安逸하기를 바라게 된다고 하였다.慾心으로 인해서는 천하의 物을 보면 탐을 내고 자기의 物을 보면 가벼이 여겨, 남의 것을 욕심내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格致藁·儒略 事物』 2-3 私心昧也 慾心闇也 放心窒也 逸心罔也

『格致藁·儒略 事物』 2-4 昧心昧學也 關心闇辨也 窒心窒問也 罔心罔思也

『格致藁·儒略 事物』 2-5 私心而昧學者 視天下事忽而視自己事重也 慾心而闇辨者 視天下物貪而視自己物屑也 放心而窒問者 思一身無慮而橫行則快於心也 逸心而罔思者 思一心無爲而自棄則便於身也

『格致藁·儒略 事物』 4-1 民有私己之得也 所以嗇也 民有慾人之有也 所以詐也 民有放縱之好也 所以侈也 民有安逸之願也 所以懶也

17) 이제마원저. 지규용역해. 東武 格致藁譯解. 영림사, 서울, 2001:41.

“嗇은 자기만의 세계와 사고에 안주하여 넓은 세계를 고루 관조하지 못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성사하는 일에 대하여도 편벽된 주관을 가지며 고치지 못하는 것이며,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치장을 하고 거만하게 굴려는 심리적 속성이고,懶는 인륜적 세계에서 기거동작을 민첩하게 하고 근신을 다하여야 하나 힘들어서 움직이기를 꺼려하여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이며,詐는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서 자기 소유의 財物을 가능한 많이 챙기려는 욕심으로 사기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18) 『格致藁·儒略 事物』 2-1 嗇心偏也 詐心倚也 侈心過也 懶心不及也

『格致藁·儒略 事物』 2-2 偏心偏決也 倚心倚止也 過心過覺也 不及心不及行也

표현하면서 嗇·侈·懶·詐의 不善함 뿐만 아니라 誠·慧·能·勤의 善함도 私·放·逸·慾으로 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¹⁹⁾.

이러한 私·放·逸·慾의 心慾에 가리워지지 않을 방도에 대해서는 學·問·思·辨의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²⁰⁾. ‘治國平天下’하는 誠은 學을 통해서 얻어지고, ‘格物致知’하는 慧는 問을 통해서 얻어지며, ‘誠意正心’하는 能은 思를 통해서 얻어지고, ‘修身齊家’하는 勤은 辨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學·問·思·辨을 통해서 誠·慧·能·勤을 키워 나간다면 私·放·逸·慾의 心慾으로부터 발생하는 嗇·侈·懶·詐의 邪心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²¹⁾.

2. 개별적·주체적 관점에서의 八條目 해석

이상의 己物論的 관점에서의 八條目 요약은 총론적 성격을 가진 것이고, 이후 『格致藁』 서술에서는 인간 생활의 존재 및 행위주체를 설정하기 위해 八條目으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게 된다.

(1) 八條目の 구분

東武는 『格致藁·儒略·天時』에서 『大學』의 八條目を 독특한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 즉 八條目인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우선 誠意·正心·修

身·齊家와 致知·格物·平天下·治國으로 각각 나누고²²⁾, 誠意와 致知, 正心과 格物, 修身과 平天下, 齊家와 治國을 서로 상대시켜 연결시키고 있다.

(2) 意·心·身·家의 誠·正·修·齊(一)

일차적으로 誠意·正心·修身·齊家(이를 달리 ‘힘을 精一하게 함(一力)’으로 표현하기도 함)을 강조하여 意·心·身·家(力)를 誠·正·修·齊(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의 의미주체인 意·心·身·家(力)를 인간 행위 주체의 네 가지 요소로 파악하여,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로 제시하고 있다.

(3) 八條目간의 상관관계

“意는 性 가운데서 편안하니 性을 알면 意를 편안하게 하고, 心은 物 가운데서 편안하니 物을 알면 心을 편안하게 하고, 身은 天下에서 편안하니 天下를 알아서 身을 편안하게 하고, 力은 國 가운데서 편안하니 國을 알면 力을 편안하게 한다”²³⁾고 하여 意·心·身·力은 性·物·天下·國을 알면 편안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① 意와 性을, ② 心과 物을, ③ 身과 天下를, ④ 力과 國을 서로 상대시켜 논하고 있는 것으로, 性·物·天下·國을 아는 것을 誠意·正心·修身·齊家(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誠意·正心·修身·齊家(一)를 개별적·내재적 요소라고 하면, 性·物·天下·國은 보편적·외향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개별적·내재적 요소의 완성은 보편적·외향적 요소의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意·心·身·力을 誠·正·修·一하게 하는 조건으로 ① 誠意를 위해서는 性을 아는데 이르

19) 『格致藁·儒略 事物』 4-2 不獨嗇之不善出於私也 雖誠之善亦出於私也 不獨詐之不善出於慾也 雖勤之善亦出於慾也 不獨侈之不善出於放也 雖能之善亦出於放也 不獨懶之不善出於逸也 雖慧之善亦出於逸也

20) 『格致藁·儒略 事物』 5-1 抑有不蔽私之道乎 其學乎 抑有不礙慾之道乎 其辨乎 抑有不陷放之道乎 其問乎 抑有不迷逸之道乎 其思乎

21) 『格致藁·儒略 事物』 5-2 以其治國平天下之誠爲學 所得之也 故其私已得之嗇 莫之蔽也 以其修身齊家之勤爲辨 所得之也 故其欲人有之詐 莫之礙也 以其格物致知之慧爲問 所得之也 故其放縱好之侈 莫之陷也 以其誠意正心之能爲思 所得之也 故其安逸願之懶 莫之迷也

『格致藁·儒略 事物』 5-5 是故私最是善作擊也 博學治平則莫之擊也 慾最是善作擊也 明辨修齊則莫之擊也 放最是善作擊也 審問格致則莫之擊也 逸最是善作擊也 慎思誠正則莫之擊也

22) 이제마원저, 지규용역해, 上揭書:136.

이는 대학 팔조목을 재해석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즉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중에서 인간의 내적 요소인 意·心·身·家(力)와 인간의 외적 요소인 性·物, 性, 치국, 평천하를 각기 배당하였다.

23) 『格致藁·儒略·天時』 6-1 意安性中 知性安意 心安物中 知物安心 身安天下 知天下安身 力安國中 知國安力

Table 2. 『儒略·天時』에서의 八條目

工夫 ²⁷⁾				功效		雜家	
기본관계		의향적 보편적	내재적 개별적				
意安性中 心安物中 身安天下 力安國中	-	知性 -致知性-養性 知物 -明萬物-格物 知天下-立天下-任重 知國 -通經國-敬國	→ 誠意 正心 修身 一力	⇒	意誠 能性 心正 能物 身修 能天下 家齊 能國	→	知天事天 知人治人 知立能立 知欲安欲
						↔	佛氏之性 絕知寂意 告子之心 拒物堅心 淺士之身 苛安尊身 愚民之家 忘國利家

리아 하고(致知性), ② 正心を 위해서는 萬物을 밝혀야 하며(明萬物), ③ 修身을 위해서는 天下를 세우고(立天下), ④ 一力を 위해서는 나라를 경영하는데 통달해야(通經國) 한다고 하였다²⁴⁾. 또 意·心·身·力이 誠·正·修·一하지 못하더라도 ① 性を 기르고(養性), ② 物에 이르며(格物), ③ 平天下의 중책을 맡고(任重), ④ 나라를 공경하면(敬國) 意·心·身·力의 誠·正·修·一이 점차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²⁵⁾.

여기서 ① 誠意的 조건인 ‘致知性’은 致知的 대상을 性으로 설정하며 八條目の ‘致知’를 ‘性을 아는데 이르는 것(致知性)’으로 보았고, 이를 다르게는 ‘性を 기르는 것(養性)’이라고 하였다. ② 正心の 조건인 ‘明萬物’은 八條目の ‘格物’에서 ‘格’을 ‘明’으로 보아 ‘萬物을 밝히는 것(明萬物)’으로 해석한 것이다. ③ 修身의 조건인 ‘立天下’는 八條目の 平天下를 ‘立天下’라 하여 ‘平’을 ‘立’으로 보아 ‘天下를 세우는 것’으로 보았고, 또 ‘任重’이라 하여 ‘(平天下의) 중책을 맡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④ 齊家를 ‘一力’으로 표현하며 힘을 精一하게 하기위한 조건으로 ‘通經國’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팔조목의 ‘治國’을 ‘通經國’이라 하여 ‘나라를 경영하는데 통달함’으로 보았고, 또 ‘敬國’이라 하여 ‘나라를 공경함’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나, ‘忠國’이라 하여 ‘나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보기도 하였다.

한편, ① 養性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사사로

운 것은 돌아보아야 하고(反妄私), ② 格物하기 위해서는 切磋琢磨함을 정밀히 해야 하며(精切磋), ③ 平天下의 중책을 맡기 위해서는(任重) 지조와 절개를 높이 해야 하고(高志節), ④ 나라를 공경하기 위해서는(敬國) 鄙陋함과 慾心을 부끄러이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恥陋慾)²⁶⁾. 이는 養性·格物·任重·敬國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 노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4) 八條目の 功效

① 致知하고 誠意하면, 意가 誠하여지고 ‘能性’할 수 있다고 하였고, ‘能性’은 하늘을 알고 섬기는 것(知天事天)이라고 하였다. ② 格物하고 正心하면, 心이 正하여 지고 ‘能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能物’이라 함은 사람을 알고 다스리는 것(知人治人)이라고 하였다. ③ 信天下하고 修身하면, 身이 修하여 지고 ‘能天下’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能天下’라 함은 (나라를) 세움을 알고 능히 세울 수 있는 것(知立能立)이라고 하였다. ④ 忠國하고 齊家하면, 家가 齊하여 지고 ‘能國’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能國’이라 함은 하고자 함을 알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知欲安欲)이라고 하였다.²⁸⁾

24) 『格致彙·儒略·天時』 6-2 不致知性 難爲誠意 不明萬物 難爲正心 不立天下 難爲修身 不通經國 難爲一力
 25) 『格致彙·儒略·天時』 6-3 雖未意誠 養性漸誠 雖未心正 格物漸正 雖未身修 任重漸修 雖未力一 敬國漸一

26) 『格致彙·儒略·天時』 6-4 不反妄私 何以養性 不精切磋 何以格物 不高志節 何以任重 不恥陋慾 何以敬國
 27) 본 도표에서의 ‘工夫’와 ‘功效’의 명칭은 기존 다른 성리학자의 여러 大學圖說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로, 원문에는 없는 표현이며 저자가 임의로 명칭하였다.
 28) 『格致彙·儒略·天時』 6-5 致知誠意 意誠能性 格物正心 心正能物 信天下修身 身修能天下 忠國齊家 家齊能國
 6-6 何謂能性 知天事天 何謂能物 知人治人 何謂能天下 知立能立 何謂能國 知欲安欲

이상을 요약하면 八條目的 功效는 能性·能物·能天下·能國하게 되는 것이며, 天·人·立·欲을 알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것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능히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제시하였다.

특히 知天, 知人과 관련하여서 『格致藁·反誠箴 乾箴下截』에서는 하늘을 안(知天) 뒤에라야 喜怒哀樂이 이미 발하여도 節度에 맞고, 사람을 안(知人) 뒤에라야 喜怒哀樂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 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은 聖人이나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여²⁹⁾, 知天과 知人の 지극히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한편, 이상의 ‘能性’, ‘能物’, ‘能天下’, ‘能國’의 경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東武는 그것들과 상반되는 예를 들고 있다. 우선 ① 性과 관련하여 佛家에서 말하는 性은 ‘아는 것을 끊고 意를 寂滅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비교하였고, ② 心과 관련하여 告子가 말하는 心은 ‘물을 배제하고 마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라고 비교하였으며, ③ 身과 관련하여서는 천박한 선비들이 ‘매우 망령되어 자신의 몸을 높이는 것’과 비교하였고, ④ 家와 관련하여서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라를 잇고 제 집만을 이롭게 하는 것’과 비교하였다.³⁰⁾

(5) 性과 意

東武는 八條目的의 ‘誠意’와 ‘致知’의 관계를 논하면서 致知의 대상을 性으로 설정하면서 ‘意’와 ‘性’간의 상호관계를 별도로 서술하고 있다.

意³¹⁾는 性을 主宰하는 것이고, 性은 意의 집이

29) 『格致藁·反誠箴 乾箴下截』 2-35 知天然後 喜怒哀樂 已發而節也 知人然後 喜怒哀樂 未發而中也 知天知人 聖之所能也 抑其次者 雖賢也 能之乎

30) 『格致藁·儒略·天時』 6-7-1 衍義曰 佛氏之性 絕知寂意 告子之心 拒物堅心 淺士之身 苛安尊身 愚民之家 忘國利家 此四者 敗亡之陷穽也 孟子曰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此之謂也

31) 금당대. 한국유학의 心說.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2003:48-49.

退溪는 마음에서 아직 발동하지 않을 때 이미 性이 갖추어져 있고 이미 발동하였을 때 情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여 마음의 體用 양면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마음의 발동하는 능동적 주체의 양상으로서 ‘意’(情意·意志)를 주목하여, 이 ‘意’는 선과 악이

라고 하였으며, 意가 나아가서 앎을 구하는 것이라 하면 앎을 얻고 동시에 앎을 반성하는 것이 性이라고 하여³²⁾, 보다 우위에서 性을 주재하는 것을 意라고 하였다. 또 『格致藁』 전편을 통해서 學·問·思·辨을 공부 및 수양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學問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意를 구하는 것’이라 하였고, 思辨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性을 갈무리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意를 성실히 하면 中庸을 택하여 능히 性을 따를 수 있다’고 하였고, ‘性을 다하면 학문과 수양을 끊이지 않아서(左右逢原) 저절로 意가 성실하여 진다’고 하였다³³⁾.

東武도 退溪처럼 선악의 주재로 ‘意’를 상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純善한 性은 聖인과 君子小人이 한가지로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易知’라고 하였으며, 善惡의 양면 어느 쪽으로 기울 수 있는 心은 聖인과 君子小人이 만 가지로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難知’라고 하였다³⁴⁾. 이러한 구도 속에서 心이 있고 그 안에 性과 意의 양면이 있는 性慾論的 心性論이 저전개되며, 그 주재자는 心이 되고 선악의 계기가 되는 意가 있음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6) 格物과 致知

朱子는 格物과 致知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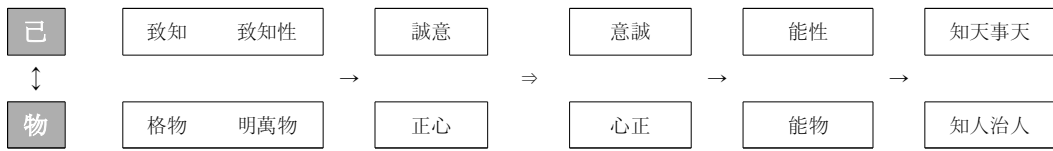
갈라지는 계기가 됨을 말하였다. 意가 선악의 ‘기미’라고 밝혀, 意가 마음의 작용 현상인 情을 끼고서 天理 쪽이나 人欲 쪽의 어느 방향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능동적 주체성을 지닌 것으로 지적하여 마음의 주체적 발동으로서의 意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선악의 도덕적 책임은 情에 있는 것이 아니고 意에 있으며 마음의 주체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선악의 가능성과 결과적 현상은 情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선악이 결정되는 도덕적 근거와 책임은 意의 자율성에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2) 『格致藁·儒略·天時』 6-7-2 意性之主宰也 性意之宅室也 意日有所得也 性日有所積也 意往而求知 得而知而反知性也 故得之者意也 實求則養性也 藏知者性也 廢積則邪意也

33) 『格致藁·儒略·天時』 6-7-2 學問之道無他 求之吾意而已 思辨之道無他 藏之吾性而已 是故 誠意則擇乎中庸 而能率性也 盡性則左右逢原 而自誠意也

34) 『格致藁·反省箴·兌箴』 3-30 性純善也 聖人與君子小人 一同也 心可以善惡也 聖人與君子小人 萬殊也 性理也 未來也 聖人與君子小人 一同理於未來也 心欲也 見在也 聖人與君子小人 萬殊欲於見在也 一同者 善也 一同 故易知也 萬殊者 惡也 萬殊 故難知也

Table 3. 東武의 格物致知



格이란 다다름이며 物이란 事와 같으니, 事物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도록 함이다³⁵⁾. 致란 미루어 다함이며, 知란 識과 같으니, 나의 앎을 미루어 다하여 그 앎에 지극하지 않음이 없고자 함이다³⁶⁾ 格物은 착수하는 것이고, 致知는 알아 얻은 것이다³⁷⁾. 양자는 理를 구한다는 것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格物致知는 단지 窮理일 뿐이다.”³⁸⁾라고 하였다. 또 “致知는 나로부터 말하고, 格物은 사물에 나아가서 말한다”³⁹⁾라고 하여, 格物은 대상인 事物에 나아가 그 理를 구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事物에 나아가 말한다’고 하고, 致知는 자기에게서 事物의 理를 터득한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말한다’고 하는 것이다. 格物은 개개 事物의 理를 극진히 궁구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곧 理를 추구하는 것이며, 致知는 事物의 理의 궁극을 터득한 것을 말한다. 즉 格物은 지적 당위 자체를 말하며, 致知는 지적 완성을 말한다⁴⁰⁾고 하였다.

東武의 格物과 致知에 관한 이론 전개는 그의 己物論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 格物을 ‘明萬物’이라 하여 萬物의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致知는 ‘致知性’이라 하여 性을 아는데 이른다는 것으로 본 것은 기존 性理學에서 致知를 ‘致知在格物’이라 하여 格物의 연장선상에 파악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物

은 객체적 입장에서의 것이며 己物관계에서의 ‘物’에 해당되고, 性은 내 안의 性으로 주체적 입장의 것이며 己物관계에서의 ‘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明萬物’하여 ‘致知性’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明萬物’은 事心身物의 本體論 구도 속에서 心에 연결이 되어 正心の 조건이 되고, ‘致知性’은 事的 요소인 事心身物 중 事에 연결이 되어 誠意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東武의 格物致知에 대한 견해는 己와 物을 파악하는 것이며, 행위 주체의 인간을 기준으로 內와 外의 파악이고, 주체적 요소의 파악과 객체적 요소의 파악의 병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朱子の “致知是自我而言. 格物是就物而言”의 내용과 유사한 논리라 하겠다.

致知와 格物로 誠意와 正心이 달성되고, 그로 인한 功效로 能性하고 能物하게 된다는 것도 ‘性’과 ‘物’의 己物論의 관점에서의 인간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中庸』 22章에서 ‘盡其性’으로부터 ‘盡人之性’, ‘盡物之性’, ‘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與天地參矣’으로 이어지는 정신⁴¹⁾을 찾아볼 수 있겠다. 또 ‘能性’하여 ‘知天事天’하고, ‘能物’하여 ‘知人治人’하는 것도 결국은 格物致知를 통한 ‘性’과 ‘物’의 파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怨天尤人함을 경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35) 『大學章句集註』 格, 至也. 物, 猶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

36) 『大學章句集註』 致, 推極也. 知, 猶識也. 推極吾之知識, 欲其所知無不盡也.

37) 『朱子語類·大學2·經下』 格物 便是下手處, 致知是知得也

38) 『朱子大全·答黃子耕』 格物致知 只是窮理

39) 『朱子語類·大學2·經下』 致知 是自我而言. 格物是就物而言

40) 오하마 아키라. 범주로 보는 주자학. 예문서원, 서울, 1999:326-327.

41) 『中庸』 二十二章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與天地參矣

3. 도덕 주체로서의 인간과 意心身家

(1) 주체적 인간의 설정

『格致彙·儒略·四戒』에서는 인간 기능의 네 가지 요소를 口·心·身·力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行적인 요소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그 주체로서 이 네 가지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으며, 天理에 반하여 언제든지 人慾에 빠져들게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口·心·身·力의 네 가지 요소는 意·心·身·家の 所在라 하여⁴²⁾ 대학 팔조목 중 誠意·正心·修身·齊家에서 誠·正·修·齊해야 할 주체가 되는 意·心·身·家에서 취한 것으로 사료가 된다. 이 편에서는 意를 口로, 家를 力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개별적 관점에서 네 가지 요소를 실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① 口는 순수(純)해야 하니 만약 치우치고 좁지(偏狹) 않으며, 고르고 바르다면(平正) 萬民이 복종할 것이라고 하였다. ② 心은 어질어야(仁) 하니 만약 냉랭하고 천박하지(涼薄) 않으며(涼薄), 진심을 다하며 도타옴게(忠厚) 한다면 萬家가 기뻐할 것이라고 하였다. ③ 身은 현명(賢)해야 하니 만약 어리석고 졸렬하게(庸拙) 하지 않으며, 뛰어나게 훌륭하다면(俊彥) 천하가 허락(許)할 것이라고 하였다. ④ 力은 충실(實)해야 하니 만약 피폐하고 연약하지(罷軟) 않으며, 충만하여 가득 채우게 된다면(充塞) 四國이 함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은 口心身力이 지향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또 ① 口는 신중히(慎) 해야 하니 만약 섞이고 어지럽지(錯亂) 않으며, 條理가 있다면 사람들이 쉽게 들을 것이라고 하였다. ② 心은 주밀해야(密) 하니 만약 경솔하고 서투르지(鹵莽) 않으며, 지혜롭게 관찰한다면(慧察) 사람들이 쉽게 볼 것이라고 하였다. ③ 身은 삼가 해야(飭)해야 하니 만약 편안함을 찾고 구차하게(偷苟) 하지 않으며,

민첩하고 독실하게 한다면(敏篤) 사람들이 쉽게 따를 것이라고 하였다. ④ 力은 절제 있게(節) 해야 하니 만약 한가하고 게으르지(閑慢) 않으며, 정밀하고 근면하게(精勤) 한다면 사람들이 쉽게 본받을 것이라고 하였다⁴³⁾. 이상은 口心身力이 주의하고 삼가해야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口·心·身·力이 순수하고 어질며 현명하고 충실함을(純·仁·賢·實) 잘 하지 못하면 口·心·身·力은 私·放·逸·慾의 心慾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였고⁴⁴⁾, 신중히 하고 주밀하며 삼가고 절제 있게 한다면(慎·密·飭·節)한다면 마침내 口·心·身·力을 誠·正·修·齊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⁵⁾ 東武는 口·心·身·力의 단속을 중요시하여 ‘定如天地·止如泰山·行如長江·成如四時’의 비유를 두어 강조하고 있다⁴⁶⁾.

『格致彙·反誠箴·離箴』에서는 ① 펴고 오리고 숨기고 드러내는 것(舒卷隱見)은 말의 틀이 되고, ② 오르고 내리면서 굽어보고 우러러보는 것(升降俯仰)은 마음의 꺾힘이며, ③ 나가고 들어오면서 가고 오는 것(出入往來)은 몸의 세움이고, ④ 구부리고 펴면서 거둬들이고 놓아버리는 것은 힘에서 얻음⁴⁷⁾이라고 하여 意·心·身·力에

43) 『格致彙·儒略·四戒』

1-1 口不可以不純 心不可以不仁 身不可以不賢 力不可以不實

1-2 口若平正 萬民服也 心若忠厚 萬家悅也 身若俊彥 天下許也 力若充塞 四國與也

1-3 口若偏狹 何以喻爲 心若涼薄 何以謀爲 身若庸拙 何以交爲 力若罷軟 何以造爲

1-4 口不可以不慎 心不可以不密 身不可以不飭 力不可以不節

1-5 口若條理 人易聽也 心若慧察 人易視也 身若敏篤 人易從也 力若精勤 人易效也

1-6 口若錯亂 孰不厭也 心若鹵莽 自多懼也 身若偷苟 應可愧也 力若閑慢 終必憂也

44) 『格致彙·儒略·四戒』 2-3 純口純心 純口有術 純口不得 反於私也 仁心仁心 仁心有術 仁心不得 反於放也 賢身賢身 賢身有術 賢身不得 反於逸也 實力實力 實力有術 實力不得 反於慾也

45) 『格致彙·儒略·四戒』 2-4 慎口慎心 慎口有成 慎口益慎 終焉誠也 密心密心 密心有成 密心益密 終焉正也 飭身飭身 飭身有成 飭身益飭 終焉修也 節力節力 節力有成 節力益節 終焉齊也

46) 『格致彙·儒略·四戒』 3-2 宜乎 止如泰山 行如長江 成如四時 定如天地

47) 『格致彙·反誠箴·離箴』 6-2 舒卷隱見 言之機也 升降俯仰 心之圖也 出入往來 體之立也 屈伸收放 力之得也

42) 『格致彙·儒略·四戒』 1-7 一意所在 萬喻出焉 一心所在 萬謀同焉 一身所在 萬交終焉 一家所在 萬造備焉

서 口를 言으로 身을 體로 표현하면서 言·心·體·力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① 한 조각의 말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② 한 조각의 마음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③ 가랑비 같은 몸동작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④ 잠깐의 힘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⁴⁸⁾ 言心體力の 경계를 서술하고 있다.

(2) 天下와 人間

『格致彙』에서는 주체적 인간과 대비되는 객체적 요소의 총칭을 ‘天下’라 표현하고 있다.

『格致彙·儒略·天勢』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적 事物의 세계를 天·世·人·地로 나누고⁴⁹⁾⁵⁰⁾ 그 속에서 인간의 智·禮·義·仁의 완성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 중에 智·禮·義·仁과 意·心·身·家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① 智가 마음속에 존양하여 있으면 이를 意가 誠하여졌다고 하고, 意가 誠을 얻으면 그 意에는 恣意함이 없다고 하였다. ② 禮가 마음속에 존양하여 있으면 이를 心이 正하여졌다고 하고, 心이 正함을 얻으면 그 心에는 期必함이 없다고 하였다. ③ 義가 마음속에 존양하여 있으면 이를 身이 修하여졌다고 하고, 身이 修함을 얻으면 그 身에는 固執함이 없다고 하였다. ④ 仁이 마음속에 존양하여 있으면 이를 家가 齊하여졌다고 하고, 家가 齊함을 얻으면 그 家에는 我私함이 없다고 하였다⁵¹⁾.

『格致彙·儒略·天下索我』에서는 객체로서의 天下와 주체로서의 我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행동의 주체인 意·心·身·力의 誠·正·修·一함을 강조하고 있다. 천하가 我를 속이려고 하

고(誑·詒·譎·佯)⁵²⁾ 我的 誠·正·修·一을 시험하려 하며⁵³⁾, 我的 意·心·身·力을 희롱하려고 해도⁵⁴⁾, 我的 意·心·身·力을 誠·正·修·一하게 하는 개별적 행동운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⁵⁵⁾. 즉 인간의 當爲 요소로서의 誠·正·修·一과 不當爲 요소로서의 誑·詒·譎·佯을 서로 對로 놓으면서 인간의 본성이 그리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意·心·身·力을 어떻게 수양하느냐의 차이에 그 원인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⁶⁾. 또한 주체인 我的 意의 미덥고 착함(信淑)을, 心의 밝음(光明)을, 身의 바르고 큼(正大)함을, 力의 勤實함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格致彙·儒略·我止』에서는 주체로서의 我가 행동하는 기본 양식인 決·遇⁵⁸⁾·行·止의 근본을 天·人·我·地에 두었고, 天·人·我·地 각각에는 事·心·身·家가 있다고 하였다. 我的 事·心·身·家는 天下의 天·衆·局·地⁵⁹⁾에 포함된 개별적 존재의 것이며⁶⁰⁾, 天·

48) 『格致彙·反誠箴·離箴』 6-4 片言 不可有失 乍心 不可有失 震體 不可有失 暫力 不可有失
 49) 『格致彙·儒略·天勢』 1-1 天勢浩瀚 世會紛競 人倫蕃殖 地方曠邈
 50) 『格致彙·儒略·天勢』 2-1 天機恒轉 世途恒盪 人身恒慎 地址恒固
 51) 『格致彙·儒略·天勢』 5-5 智在存心 是謂意誠 意若得誠 其意無意 禮在存心 是謂心正 心若得正 其心無必 義在存心 是謂身修 身若得修 其身無固 仁在存心 是謂家齊 家若得齊 其家無我

52) 『格致彙·儒略·天下索我』 1-1 天下索我 以誑圖我 天下探我 以詒凌我 天下極我 以譎困我 天下覓我 以佯窺我
 53) 『格致彙·儒略·天下索我』 1-2 無怪其誑 誑試汝誠 無怪其詒 詒試汝正 無怪其譎 譎試汝修 無怪其佯 佯試汝一
 54) 『格致彙·儒略·天下索我』 1-4 莫嘆人意 人戲汝意 莫憤人心 人弄汝心 莫憚人身 人搖汝身 莫怨人力 人掀汝力
 55) 『格致彙·儒略·天下索我』 1-1 天下索我 以誑圖我 天下深我 以詒凌我 天下極我 以譎困我 天下覓我 以佯窺我
 1-2 無怪其誑 誑試汝誠 無怪其詒 詒試汝正 無怪其譎 譎試汝修 無怪其佯 佯試汝一
 56) 『格致彙·儒略·天下索我』 1-6 誠証自然 意在自然 正詒自然 心在自然 修譎自然 身在自然 一佯自然 力在自然
 57) 『格致彙·儒略·天下索我』 2-1 我意信淑 誰意反側 我心光明 誰心悽味 我身正大 誰身儉惰 我力勤實 誰力拙劣
 58) 『格致彙·儒略·我止』에서는 決覺行止의 覺을 遇로 표현함
 59) 이제마원저, 지규용역해, 上揭書:156.
 “地는 내가 부지런히 일구어야 하는 논과 밭 등의 땅을 말하고, 局은 내 재능으로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영역을 말하며, 衆은 집과 땅의 관계처럼 내 마음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관계를 가진 존재이며, 天은 몸과 局의 관계처럼 나의 마음이 고민하고 사유하는 분야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활동영역이다.”
 60) 『格致彙·儒略·我止』 1-2 我家着地 地命我勤 我

衆·局·地는 개별적 我的事·心·身·家를 양육하고 베풀어 주는 존재이다⁶¹⁾. 이는 誠·慧·能·勤이라는 개별적 행동 윤리의 道德的 當爲性을 요구하게 되는데, 我的事·心·身·家에서 決·遇·行·止함에 誠·慧·能·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⁶²⁾. 여기서 개별적 我的 행위 주체를 事·心·身·家로 나누어 본 것은 다른 편에서와 같고, 事는 다른 편에서의 意와 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格致藁·反誠箴·震箴』에서는 籌策·雄武·儀範·材力이라 하여 天下·世間·人倫·疆域의 天下의 네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덕목을 네 가지로 설정하면서 이의 의미 주체를 意·心·身·力으로 설정하고 있다⁶³⁾⁶⁴⁾.

(3) 人事와 人間

① 人事의 주체

『格致藁·儒略·遊世箴』에는 世會에 나가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東武는 여기서 意·心·身·力의 행위주체적 요소를 설명하면서 心을 피(猷)로, 力을 품행(品)으로 바꾸어 意·猷·品·力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이를 다시 ‘말 하는 것(言語)’, ‘마음속에 쌓고 담는 것(蘊抱)’, ‘용모와 기거동작(容止)’ 및 ‘부지런히 힘씀(勤勞)’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아침하는 말(佞言)’, ‘거짓되게 쌓는 것(僞蘊)’, ‘용모만을 부드럽게 하는 것(荏容)’, ‘노고를 거짓되게 하는 것(假勞)’ 등을 들어 言語·

蘊抱·容止·勤勞의 잘못된 모습을 말하였다⁶⁵⁾. 사람들이 모여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여러 사회적 모임의 형태(席·襟·會·所)를 만들어 낸다⁶⁶⁾. 같은 사회적 모임 속에서 사람들은 같은 意·猷·品·力으로 서로 생활하는 가운데 好惡, 愛憎, 美醜, 勤惰 등의 것이 있게 되고⁶⁷⁾, 서로 다투고 경쟁하게 된다⁶⁸⁾. 이때 좋은 席·襟·會·所를 찾는데 있어 강조하는 것이 意·心·身·家를 誠·正·修·齊하는 것이다.⁶⁹⁾ 또 좋은 席·襟·會·所를 찾기 위해서는 言語·蘊抱·容止·勤勞는 謹·敬·忠·實 하셔야 하고⁷⁰⁾, 헛되게 남의 席·襟·會·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意·心·身·家를 誠·正·修·齊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⁷¹⁾. 즉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意·心·身·力의 誠·正·修·一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格致藁·反誠箴·震箴』에서도 天下의 네 차원과 더불어 人事의 네 차원인 席·襟·堂(遊世箴에서는 會로 표현)·所에서의 의미 주체를 意·心·身·力으로 설정하면서 天下에서의 네

身立局 局命我能 我心渾衆 衆命我慧 我事係天 天命我誠

- 61) 『格致藁·儒略 我止』 1-4 地養萬家 不吝其利 局育萬身 不吝其材 衆包萬心 不吝其謀 天施萬事 不吝其時
- 62) 『格致藁·儒略 我止』 1-5 我止我家 莫如勤也 我行我身 莫如能也 我遇我心 莫如慧也 我決我事 莫如誠也
- 63) 『格致藁·反誠箴 震箴』 1-5 籌策 天下之籌策也 雄武 世間之雄武也 儀範 人倫之儀範也 材力 疆域之材力也
- 64) 『格致藁·反誠箴 震箴』 1-7 籌策 彌滿於六合 而言語平正於一席者 意識之言語也 雄武 通融於大衆 而蘊抱敦篤於一襟者 心正之蘊抱也 儀範 包涵於億兆 而容止整齊於一堂者 身修之容止也 材力 周足於全境 而勤勞眞的乎一所者 力至之勤勞也

- 65) 『格致藁·儒略 遊世箴』 1-15 勿銜籌策 貴人疑汝 勿飭貴人 貴人厭汝 籌策不銜 胡爲眩詭 貴人不話 胡爲佞言 勿耀圖術 顯人貳汝 勿干顯人 顯人憎汝 圖術不耀 胡爲騰凌 顯人不干 胡爲僞蘊 勿誇儀範 望人玩汝 勿要望人 望人忌汝 儀範不誇 胡爲廣張 望人不要 胡爲荏容 勿鬱材力 富人弄汝 勿媚富人 富人疾汝 材力不霽 胡爲巧捷 富人媚 胡爲假勞
- 66) 『格致藁·儒略 遊世箴』 1-1 同所雜起 人力相作 同會雜居 人品相獻 同襟雜立 人猷相觀 同席雜坐 人意相談
- 67) 『格致藁·儒略 遊世箴』 1-2 相談相議 有好有惡 相觀相謀 有愛有憎 相獻相與 有美有醜 相作相處 有勤有惰
- 68) 『格致藁·儒略 遊世箴』 1-3 好惡相反 主客必激 愛憎相博 遠近必伐 美醜相持 親疎必爭 勤惰相逆 生熟必競
- 69) 『格致藁·儒略 遊世箴』 1-5 尋所以所 好處難得 訪席以席 好議難得 不齊其家 實無處也 不誠其意 實無議也
『格致藁·儒略 遊世箴』 1-6 同襟以襟 嘉謀不易 參會以會 嘉與不易 不正其心 眞無謀也 不修其身 眞無與也
- 70) 『格致藁·儒略 遊世箴』 1-11 言語必謹 蘊抱必敬 容止必忠 勤勞必實
- 71) 『格致藁·儒略 遊世箴』 2-6 莫好人席 人席有患 必誠其意 誠意無患 莫好人襟 人襟有憂 正心無憂 莫好人會 人會有尤 必修其身 修身無尤 莫好人所 人所有累 必齊其家 齊家無累

덕목인 籌策·雄武·儀範·材力이 갖추어 지고, 人事에서의 네 덕목인 言話·蘊抱·容止·勤勞가 잘 갖추어진 것을 각각 ‘意誠之言語’, ‘心正之蘊抱’, ‘身修之容止’, ‘力至之勤勞’라 제시하였다⁷²⁾.

『格致藁·反誠箴·兌箴』에서는 事務에서는 意를 事務하는데 두고, 交遇에서는 心を 交遇하는데 두며, 黨與에서는 身を 黨與하는데 두고, 處所에서는 形을 處所에 둔다고 하였⁷³⁾, 행위의 주체인 意·心·身·形이 人事의 네 영역인 事務·交遇·黨與·處所에서도 주체적 요소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대중교화의 주체

東武는 『格致藁·儒略·土氓』에서 일반 백성인 대중을 교외에 나가 사는 사람(農), 거리에 모여 사는 사람(衆), 들판에 흠어져 사는 사람(民), 땅에 붙어 사는 사람(氓)으로 구분하고⁷⁴⁾, 도덕적 교화를 위해서 그들과 어우러짐을 和同·聚團·局方·居處로 구분하였다⁷⁵⁾. 대중(農·衆·民·氓)을 다스리고, 도덕적 교화를 위해서는 그들과 어우러짐에(和團局居) 있어서의 決·覺·行·止하는 모습은 다시 和同·用心·行身·居處라 표현 하였는데 이것이 앞에서의 意·心·身·力이 사회적으로 확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農·衆·民·氓은 환경적 영향에 따라 항상 窮·困·賤·貧하게 되고⁷⁶⁾, 쉽게 嗇·侈·懶·詐의 邪心을 갖게 된다⁷⁷⁾. 그러므로 대중(農·衆·民·氓)과 더불어 어우러짐에(和·團·局·居)

嗇·侈·懶·詐의 邪心을 경계하고 學識·威儀·廉節·方略에 힘쓰게 하고 축적시켜 教化시켜야 한다고 하였다⁷⁸⁾. 여기서 學識·威儀·廉節·方略은 誠·慧·能·勤의 대중교화적 측면에서의 실천윤리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결국 대중(農·衆·民·氓)은 쉽게 嗇·侈·懶·詐에 빠지므로 爲政者는 和同·用心·行身·居處함에 이 嗇·侈·懶·詐를 경계해야 하니⁷⁹⁾, 和同·聚團·局方·居處함에 삼가고 신중히 하기를 '如臨深淵·如登泰山·如涉大坂·如履薄水'하듯이 하라 하였다⁸⁰⁾. 그래서 無嗇·無侈·無懶·無詐를 和同·用心·行身·居處의 大道라고 하였다⁸¹⁾.

Ⅲ. 結 論

이상과 같이 東武 李濟馬의 『大學』 八條目에 대한 견해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大學』의 八條目を 治平, 格致, 誠正, 修齊의 네 항목으로 구분하여 요약하고, 格致와 誠正은 개별적·주체적 차원의 것으로, 治平과 修齊는 보편적·객체적 차원의 것으로 보아 東武의 事心身物的 本體觀 속에서 己物관계로 재해석하고 있다. 또한 事心身物的 本體觀 속에서 誠·慧·能·勤이라는 개별적 행위윤리와 智·禮·義·仁의 보편적 행위윤리와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인간의 私·放·逸·慾의 心慾 및 嗇·侈·懶·詐의 邪心과의 상관관계 하에 이것

72) 『格致藁·反誠箴·震箴』 1-7 籌策 彌滿於六合 而言語平正於一席者 意誠之言語也 雄武 通融於大衆 而蘊抱敦篤於一襟者 心正之蘊抱也 儀範 包涵於億兆 而容止整齊於一堂者 身修之容止也 材力 周足於全境 而勤勞眞的乎一所者 力至之勤勞也

73) 『格致藁·反誠箴·兌箴』 3-1 在務 意在務上 在遇 心在遇上 在黨 身在黨上 在所 形在所上

74) 『格致藁·儒略·土氓』 1-1 着土爲氓 散野爲民 聚衢爲衆 出郊爲農

75) 『格致藁·儒略·土氓』 2-3 氓與爲居 眞不閑慢 民與爲局 眞不尋常 衆與爲團 眞不輕忽 農與爲和 眞不容易

76) 『格致藁·儒略·土氓』 1-3 氓產恒貧 民行恒賤 衆遇恒困 農務恒窮

77) 『格致藁·儒略·土氓』 1-4 貧心易詐 賤心易懶 困心易凌 窮心易嗇

78) 『格致藁·儒略·土氓』 2-2 方略之積 氓乃恭臂 廉節之鍊 民乃捨杖 威儀之蘊 衆乃解劍 學識之畜 農乃置箭

79) 『格致藁·儒略·土氓』 3-3 居處行詐 詐者窺詐 行身行懶 懶者嘲懶 用心行侈 侈者譏侈 和同行嗇 嗇者諂嗇

80) 『格致藁·儒略·土氓』 3-4 敬爾居處 如履薄水 戒爾局方 如涉大坂 謹爾聚團 如登泰山 慎爾和同 如臨深淵

81) 『格致藁·儒略·土氓』 4-1 居處自有大道 一言蔽曰無詐 軍子然後無詐 行身自有大道 一言蔽曰無懶 豪傑然後無懶 用心自有大道 一言蔽曰無侈 大人然後無侈 和同自有大道 一言蔽曰無嗇 賢哲然後無嗇

들을 극복하기 위한 요소 등과 연결시키고 있다.

2. 개별적·주체적 인간을 설정하고 八條目を 誠意·正心·修身·齊家와 致知·格物·平天下·治國으로 각각 나누어, 誠意와 致知, 正心과 格物, 修身과 平天下, 齊家와 治國을 서로 상대시켜 연결시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誠意·正心·修身·齊家(一)를 개별적·주체적 인간의 기본적 당위행위로 파악하여, 意·心·身·家(力)를 誠·正·修·齊(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 의미주체인 意·心·身·家(力)를 인간 행위 주체의 네 가지 요소로 파악하여, 객체로서의 天下·人事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東武 자신의 인식론, 심성론, 도덕론 및 수양론 전개의 주체적 요소로 설정되게 된다.

IV. 參考文獻

1. 김혁제 校閱. 原本備旨大學集註. 重版. 명문당, 서울, 1988.
2. 김혁제 校閱. 原本備旨中庸. 重版. 명문당, 서울, 1988.
3. 黎靖德 編. 허택, 이요성 역주. 朱子語類-우주와 인간에 대한 토론. 청계, 성남, 1998.
4. 성문출판사편집부 편. 朱子大全. 보경문화사, 서울, 1984.
5. 오하마 아키라. 범주로 보는 주자학. 초판, 예문서원, 1999:326-327.
6. 한국사상연구회. 圖說로 보는 한국유학. 예문서원, 서울, 2000:43.
7. 이제마원지. 지규용역해. 東武格致藁譯解. 영림사, 서울, 2001:41,136.
8. 금장태. 한국유학의 心說.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2003:48-49.
9.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역음. 四象醫學. 2판. 집문당, 서울, 2004:46.
10. 송일병의. 사상의학 문헌집-부제: 사상체질과 임상편람 2권. 3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서울, 2006.
11. 이을호. 東武四象說의 經學的 基調. 한국학보, 1977;6:132-154.
12. 이준희,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格致藁 儒略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2):1-14.